이주의 추천음반 뮤직〈찬양〈CCM 뮤직〈찬양〈JAZZ

조항선 – Greatest (CD) 찬송가 재즈피아노 연주

재즈피아니스트이자 음악사역자인 조항선의 첫 번째 재즈 Hymns 앨범.

Greatest란,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위대한"이라는 뜻으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크리스천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Greatest는 지금까지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경험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자 감사의 고백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8월에 발매 된 조항선의 첫 앨범 〈For by Grace〉가 전통적 재즈 트리오 기반의 앨범이었다면, 2집 〈Greatest〉는 찬송가를 재즈로 연주한 이지 리스닝 앨범이다.

그는 자신의 신앙고백이 담겨 있는 찬송가들을 중심으로 앨범 타이틀인 "Greatest",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It came upon the midnight clear", 그리고 회심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향한 "너를 만드신 주를 믿는가"까지 각 곡을 통해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감각적인 편곡으로 듣는 이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한다.

특별히, 그의 자작곡인 〈너를 만드신 주를 믿는가〉에서는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곽윤찬"이 작사와 더불어 공동으로 작·편곡에 참여하였고, CCM 사역자이자 재즈 보컬리스트인 〈히즈윌(HisWill) - 광야를 지나며〉의 보컬 '김동욱(David Dongwook Kim)'이 노래하였다.

그가 전하는 편안하고 영감 있는 연주를 통해 듣는 이들에게 평안함과 위로, 회복이 경험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Gospel

'국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복음 체험

바야흐로 7월과 8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업과 직업의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깊게 회복하며 식어 있던 신앙의 온도를 되찾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름 사역은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특별한 영적 계절입니다.

필자 역시 중학교 3학년 시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 계절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눈물,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드렸던 고백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성령의 역사들을 떠올리면, 지금 이 여름에 하나님을 만날 청소년과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름은 언제나 '새로운 만남'의 계절이고, '다시 뜨거워지는' 계절입니다.

또한 이 여름은 단기 선교의 시즌이기도 합니다. 사실 필자는 지금 일본의 어느 공항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라는 큰 명제를 이루어 가시는 이 때에, 제가 시무하는 전주 신동교회 청년들과 함께 일본 히리마교회를 방문하여 찬양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일본 성도들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청년들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국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히리마교회에서의 찬양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예배였습니다. 청년들은 준비한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렸고, 일본 성도들은 그 찬양을 통해 깊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 곳에 생명샘 솟아나"를 함께 부를 때, 성령께서 메마른 심령 위에 새 생명과 소망을 부어 주시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성령의 임재는 동일했습니다.

여름 시즌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찬양, 교제 가운데 다시금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수련회는 단순히 교회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 재충전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방향을 다시 세우고, 찬양을 통해 마음을 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고, 세대를 넘어 영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장 먼저 열어 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름 사역에서 함께 나누었던 찬양 소개

이번 일본 히리마교회 찬양 콘서트에서 특별히 많은 은혜가 있었던 곡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이 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번 콘서트의 핵심이 된 곡입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생명샘이 다시 흐르기를 간구하는 고백이 일본 성도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곡으로, 일본 성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 넘치나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찬양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었습니다.

일본 찬양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본 성도들과 함께 부르며 현지 교회와의 연합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곡입니다.

일본 찬양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콘서트의 분위기를 은혜롭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올여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생명샘이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 위에 다시 흘러 넘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계절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은혜가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히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 영
아이노스 찬양선교사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회 2026 광주국제평화연극제
평화를 품은 브랜드 공연의 첫걸음

양수근 작가 '총과 꽃의 춤' 주제공연 선정
연극협회 광주지회, 운영위체제 새 도약

(사)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가 주최하는 제22회 2026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올해부터 기존 예술감독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위원회 체계를 도입하며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하정 총감독은 연극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며, 해외 초청공연을 비롯해 대학연극제, 시민연극제, 개·폐막 프로그램 등 기존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를 확대해 연극제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국제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오랫동안 지향해 온 '평화를 주제로 한 브랜드 공연'제작의 첫걸음으로 주제공연 희곡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 결과, 양수근 작가의 〈총과 꽃의 춤〉이 2026 광주국제평화연극제의 주제공연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총과 꽃의 춤〉이 전쟁과 폭력, 생명과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총', '꽃', '춤'이라는 상징적 이미지와 신체 언어를 중심으로 풀어낸 작품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정 역사적 사건을 직접 재현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누구나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징을 통해 폭력 이후 인간이 어떻게 다시 공존과 희망을 선택하는지를 담아내고 있어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추구하는 평화의 정신을 세계 관객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품으로 판단했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높은 보편성과 다양한 연출적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의 역사적 경험을 특정 지역의 기억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인류 보편의 평화와 공존의 가치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교류 공연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는 것이 선정 이유이다.

선정된 희곡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될 광주연극협회 소속 제작단체와 함께 2026 광주국제평화연극제 주제공연으로 제작된다. 제작 과정에서는 운영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의 창작 의도와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며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김하정 운영위원장(총감독)은 "광주국제평화연극제의 주제공연은 한 해 공연으로 끝나는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의 희곡이 매년 새로운 연출가를 만나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고 발전하는 '평화 브랜드 공연'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예술로 확장하고, 앞으로 전남·광주 통합 시대를 대표하는 국제평화연극제로 발전시켜 세계의 관객들이 광주를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22회 2026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해외 초청공연과 대학연극제, 시민연극제, 평화시민연극경연대회,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예술로 확장하며 국제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c.or.kr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 목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 집 안 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 정 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 학 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 학 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현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 술 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광주총신 특별사항
- 신 학 부 :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신학연구원 :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http://gsccc.or.kr)
- 주 야 간 반 : 매주 월/화 (주간:오전10시, 야간:오후6시)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 부부학생특혜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교회 개척,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기총 가입 교단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 수시접수(062-266-0153)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 0명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총회신학 연구원장 : 임강원 목사

토요반 수시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신학교육기관입니다.